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각성하라!

정진홍의 겉치 엔지니어링



겉치엔지니어

1548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가 소쇄원 주인 양산보(梁山甫·1503~1557)에게 보낸 한 시 한 편이 전한다. '무신(1548)년 정월 보름날 소쇄원에 드리다(戊申上元奉寄瀟瀟園)'라는 제목의 시인데 내용인즉 이렇다. "소쇄원에는 소쇄옹이 있어(瀟瀟園中瀟瀟翁)/ 한 해 농사를 동풍에 점쳐보네(一年春事占東風)/ 매화 소식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나(梅花消息渾依舊)/ 문논나 인심 또한 그대로인지(爲問人心同不同)." 하서 김인후는 퇴계 이황과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후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설서(說書)로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를 가르쳤던 이다. 하지만 인종이 즉위 9개월 만에 사망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 장성으로 돌아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정진한 올곧은 인물이다. 훗날 정조 때에 이르러 문정공(文正公)이란 시호와 더불어 문묘에 배향된 18현 중 한 사람이 그이다. 대원군이 그의 고향 장성을 가리켜 '문물여장성(文不如長城)', 즉 학문으로는 장성만 한 곳이 없다고 말한 까닭도 그로부터 연유한다.



대한민국은 결코 '엽전'이 아니다. 문제는 '돈' 아닌 '자존감'에 있다!

하서가 그의 사돈인 양산보에게 보낸 이 한시를 작금의 풍류로 변용시켜 읽어보자면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 "용산원에선 석열을 있어/ 한 해 국정을 동풍에 점쳐보네/ 매화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나/ 문논나 민심 또한 그대로인가." 여기서 동풍(東風)이라 함은 지난 삼일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한일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바람이다. 하나 거스르기 힘든 바닥 민심은 돈(배상금)은 그렇다 쳐도 마음만큼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서 김인후가 양산보에게 한시를 지어 보낼 즈음(1548년) 독일 작센의 선제후(選帝侯) 모리츠(Moritz von Sachsen)는 자신의 영지 내에 있던 드레스덴에 궁정악단을 만들었다. 475년 전의 일이다. 이것이 독일 클래식

의 오래된 자존감이라 할 드레스덴 슈타츠히켈레의 모태다. 지난 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히켈레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이 있었다. 1953년생인 정명훈은 약관의 나이를 갖 낚긴 21세였던 1974년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심장부 모스크바로 들어가 차이콥스키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며 일약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사실상의 우승자나 다름없던 그는 모스크바에서 도쿄를 거쳐 김포로 들어와 서울 시내까지 축하 카퍼레이드를 벌인 당사자가 됐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유신 독재에서 경제개발의 발동이 걸려 있던 시기였지만 여전히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스무 살을 갓 낚긴 젊은이가 당시 냉전 체제하에서 우두머리 적성 국가

클래식 최정상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는, 한 컷의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삽화처럼 내 가슴에 새겨졌다. 문화적 자존감의 강력한 낙인이었다. 그 래서인지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눈물이 났다. 그리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이 협연되는 내내 나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예술의전당 전석을 입주의 여지 없이 꽉 채운 3000여 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슈타츠히켈레 단원들마저 그러했다. 1악장 후반부에 피아니스트 홀로 독주하는 부분에서 슈타츠히켈레의 전 단원들을 살펴보니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에 눈을 잃은 듯 빠져드는 모습이 아니던가.

나는 조성진이 예원을 다니던 중 학생 시절 그를 처음 봤다. 서초동의 모차르트홀에서 신수정 전 서울음대 학장과 단원이 객석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다소 통통하고 엷된 중학생의 연주가 나를 '몰입'시켰다. 내가 음악을 잘 알아서서가 아니었다. 쇼팽의 스케르초로 기억되는 곡을 그가 연주할 때 내 몸이 점점 그에게로 기울었던 솔직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그 몰입의 힘이 조성진의 힘이었다. 물론 조성진의 몰입력은 그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다. 후배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위시해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코리안 클래식의 놀라운 질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공감하듯이 대한민국의 문화력은 가히 세계 최정상 수준이다. 영화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클래식 같은 고급 문화에서도 예외 없이 그러하다. 그만큼 우리는 자존감 있는 나라가 되었다. 반세기 전 아니 십 수년 전까지도 '엽전'이 별수였고, '조센진'이 오죽하랴 하는 식의 자기 비하가 일상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코리아 하면 다르다"는 자타 공인의 상찬의 말로 바뀌지 않았는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부터 독립해 70여 년이 되어갈 무렵 펠프 월도 에머슨은 자신의 에세이 '자연'에서 '마투티나 코그니티오(matutina cognitio)'라는 라틴어를 이야기한다. '이른 아침의 각성'이란 뜻으로, 어둠이 가시며 날이 채 밝기 전 새벽녘 햇빛 같은 깨달음이라고 할까? 작금의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社 說

장교·부사관 이탈 부르는 '병사 월급 200만원' 밀어붙일 일 아니다

병사 월급 인상과 관련해 군 부사관들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병장 월급을 200만원대로 올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초급 장교·부사관과 봉급 차이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임관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잇단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13년 10만원에서 2022년 67만원으로 뛰었다.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올해는 월봉 100만원과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원을 더해 13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에는 165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이 된다. 현재 소위와 하사 1호봉 봉급은 각각 178만원과 173만원이다. 2025년엔 184만원과 179만원이 된다. 명목상 봉급만 보면 병장보다 20만원가량 적어진다. 각종 수당을 더하면 250만원 가량 된다지만 병사는 면제해주는 세금도 내야 한다.

학군장교(ROTC)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10개월 길다. 받는 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책임은 많고 일도 고되다. ROTC를 중도 포기하거나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ROTC 훈련기간(2~4개월)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신병 훈련소 면제에 상병 이상 계급도 받는다. 지금 수도권 학군단은 정원도 못 채운다.

부사관 지원이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하다.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이들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병사도 오히려 지출일 뿐이다. 탱크, 자주포, 장갑차,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를 정비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모두 장교와 부사관이다. 이들이 없으면 군은 그대로 무너진다. 그런데 숫자 많은 병사들 표를 의식해 정치인들이 병사들 인기 얻는 데만 신경을 쏟고 있다.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에 매년 5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와 균형을 맞추려고 장교와 부사관까지 줄줄이 월급을 올리면 총 8조~10조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F-35 스텔스 전투기 50~60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매년 군 월급으로 더 들어간다. 북한의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할 일인가. 적절한 수준으로 병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 군의 체계를 흔들고, 안 그래도 산더미 같은 빚을 진 국가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선 안 된다. 병사의 사기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 포퓰리즘은 대선 때마다 복무 기간을 줄여 제대로 전술을 익히기도 전에 제대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병사 월급 올리기 경쟁까지 가세했다. 월급 200만원 공약을 철회하면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또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이젠 아이 낳고 싶겠나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학생 수가 1% 가까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10.8%나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78.3%),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3.1%나 급증했다. 초등학교까지 사교육에 본격 뛰어들었다니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정부는 코로나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 온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사교육비가 감소했다. 특히 2009년 방과 후 학교에 교과 교육을 포함하고 2010년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을 70%로 올린 것이 효과가 컸다.

주춤하던 사교육비는 2017년 1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원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년 내내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없이 실효성 없는 방안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서 2019년 EBS 교재 연계율을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고 2014년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한 것 등이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였다.

사교육비가 늘면서 학생들 역량이나 우리나라 학문 수준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해 이런 남비와 고통을 자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악이다. 저출산의 핵심 이유로 주택난, 취업난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가 꼽히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근본 대책부터 당장 눈앞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

한국 정부가 6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차 번째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발표하자 유럽 연합(EU)은 "한일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중요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간 협력에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각국의 환영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G20과 OECD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런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국제사회의 환영 성명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완벽할 수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변제 책임을 떠안는 방식 자체가 일반 국민

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국이 있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해법이 없다. 전 정부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북핵 위험이 심각해진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하지만 5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온 민주당만은 '경솔국치' '굴종' '늑약'이라는 등으로 연일 비난을 하고 있다. 해법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징용 재단에 출연금을 내기로 한 국내 기업을 "친일 기업"이라고 한다. 이 논리엔 유엔과 EU도 '친일'이다. 11일엔 거리 시위로 벌인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제사회와 이렇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반일 물꼬로 이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일본 문화 수입 개방의 결단을 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까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尹대통령, '주사파 죽창가'와 정면대결... '박정화·노무현의 길' 택했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박정화	전국적 반대 무릅쓰고 한일국교정상화-청구권협상 체결
노무현	지지층 반대 불구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결단
문재인	정파적 이익에는 멀어 비겁하게 '죽창가' 선창

죽창가(竹槍歌) 때창, 다시 터져 나오나

3월 6일에 나온 해법으로 일제 징용피해와 관련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법을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포스코 등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액을 '대리 변제'한다. 그리고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련(經團連)

이 양국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 해법이 주요효과는 낙관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완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미·반일 민중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남한 극좌파가 그 세력이다.

이들은 한·미·일 3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자유 진영을 적대해, 중공-러시아-북한의 대륙 전체주의 진영에 가담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향을 흔히 죽창가(竹槍歌)에 비유하곤 한다.

시대착오적 화적(火賊) 세력

오늘의 한국은 이미 조선왕조 말기의 죽창으로 상징되지 않는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일부 시대착오적 '반디도(bandido, 火賊) 세력'은, 그런 한국을 여전히 '신(新) 식민지 반(半) 자본주의 사회'라 규정해 그 해방을 주장한다. 남한 주사파는 지난 71년간의 한국의 눈부신 번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존재 이유는 자멸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살 골인 줄 알면서도... 국의 위해 추진한 용감한 정치 지도자는? 문재인, 노무현 발끝에도 못 미치는 비겁한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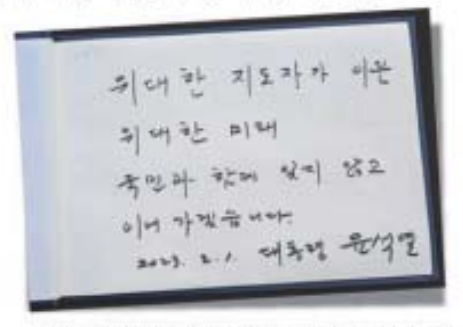
역대 정치 지도자들 역시 좌경 세대에 영합한 나머지 그것을 고독하게 거스르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지 않았고,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그릇된 포퓰리즘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나마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 FTA체결을 해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던 박정희 그때는 틀렸고 지금 보니 옳았다? 아니, 그때도 옳고 지금 봐도 옳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해법'은, 그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래 당위(當爲)를 상기시킨다. 정치 지도자라면 마땅히, 당대의 비난·욕설보다는 시대적 소명을 더 직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역풍을 우려하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

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이제는 '한·미·일 협력+인도-태평양 자유 진영'의 일원 한국으로 가야 한다. 21세기 수구반동 '주사파 죽창가'를 저 멀리 뒤로 한 채.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참배 뒤 남긴 방문록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3월 7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이 광고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